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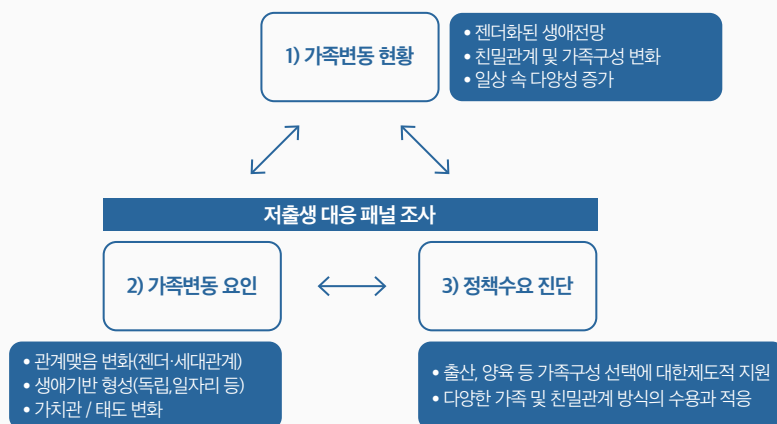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 방안¹⁾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 본 연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의 가족 변동과 이를 둘러싼 성평등 여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가족패널 조사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당사자인 청년세대 가치관·인식 변화 포착을 위한 조사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저출생 및 가족변동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본지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과 관련된 기초설계(안)을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저출산 정책효과의 국가비교를 위한 국제표준화 도입 방안과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 프레임워크(안)>



1) 본 원고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선미·정성미·한진영·박민규·이소영(2023).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패널조사 자료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가족패널 구축에 대한 필요성

-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속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가족변동을 경험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로, 나타나 처음으로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경험한 이후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9월(3/4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집계되는 등 역대 최저 수치가 나타났음(통계청, 2023.11.29.:3).
- 저출생 현상 기저에는 우리사회 가족변동을 추동하는 젠더, 세대간 관계맺음의 근본적 변화가 있으며, 보다 성평등한 관계 속에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고 친밀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지향과 실천이 담겨 있음. 따라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우리사회의 가족구성 내용 및 방식에서 관계맺음과 친밀성, 파트너십을 둘러싼 근본적 변화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저출생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 및 생애기획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우리사회 젠더, 세대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임.
 - 정책설계시 효과적 데이터의 구축은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전제조건이며, 패널조사는 가족변동, 생애과정 이행에 따른 경험, 가치관/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 방법임.
 - 안정적 패널자료의 구축은 가족변동 및 생애과정 이행을 종단추적하여 정책분석·평가의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로서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가능하게 해줌.
- 우리사회의 저출생 현상에 대한 근거기반 분석을 위해 가족의 변화된 전망을 남녀 및 세대관계를 성평등 여건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과 조사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함.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안)은 새로운 세대의 성평등 여건과 향후 생애전망을 추적조사하며, 1) 제도화의 다양성, 2) 가족구성의 다양성, 3) 일에 대한 다양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돌봄, 성재생산, 일자리 및 일생애 다양성, 가치관/인식 등 변화된 가족현황을 분석함.
 - (세대 및 젠더관계) 저출생 및 가족변동 이슈의 성별·세대별 관계 특성 조망
 - (정책당사자) 청년세대 등 정책당사자 가치관 인식조사 강화
 - (가족·생애 사회변화) 가족 및 일·생애 다양성, 새로운 세대 경험 및 욕구 조망
 - (국제표준화) 저출생 및 가족변동 이슈의 국제비교 가능성 제고
- 우리나라의 이례적인 초저출산 현상의 요인분석을 위해 출산률 하락과 반등을 경험한 타 국가와의 비교가 필요함. 따라서 특히 저출생 대응정책 효과의 국가비교를 위한 조사항목의 국제표준화 도입 방안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글로벌 인구가족 변동과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

- 가족변동과 관련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유사 주제를 공유하는 국제조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사지표의 다국가간 표준화(harmonization)가 가능하도록 문항을 설계하는 등 방안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현황을 가족관계 변동을 중점에 두고 종단 조사한 자료는 구축되어있지 않음. 또한 가족과 돌봄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가능한 조사자료를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임. 관련 분야의 국내외 지표체계와 조사자료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저출생 관련 지표체계로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체계, OECD Family Database, ILOSTAT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dicators 등이 있음.
 - 여성·가족, 출산 관련 조사자료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출산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독일 인구조사 연방연구원 The German Family Demography Panel Study(FReDA)가 있음.
-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패널조사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의 '세대와 젠더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가 있음. 동 조사는 젠더와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인구 및 가족변동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GGS는 가족과 생애 과정의 궤적(life course trajectories)과 젠더의 관계에 관한 다국적 종단(longitudinal)조사로, 현재 제2기(GGS-II, the second round) 2017년부터 19개 국가에서 조사 준비 또는 참여 중임.²⁾
 - GGS는 주요 문항에 대한 횡단적(cross-sectional) 국제비교가 가능하면서, 패널조사로서 종단적(longitudinal) 생애 변화요인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GGS 참여국가는 3년 주기로 3회 조사실시가 필요함. 따라서 GGS 조사에 참여한다면, 조사수행되지 않는 해에 우리나라 정책수요를 반영한 주제모듈의 개발이 가능함.

〈표 1〉 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대상 국가

구분		남성
GGS-II (2020~)	이용 가능	(7개국) 벨라루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몰도바, 노르웨이, 스웨덴
	공개 예정	(12개국) 오스트리아,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예비조사), 독일, 홍콩, 네덜란드, 대만, 영국, 우루과이
GGS-I (2004~2011)	Wave1	(19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스웨덴
	Wave2	(14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Wave3	(3개국)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출처: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https://www.ggp-i.org/>, 최종 접속일: 202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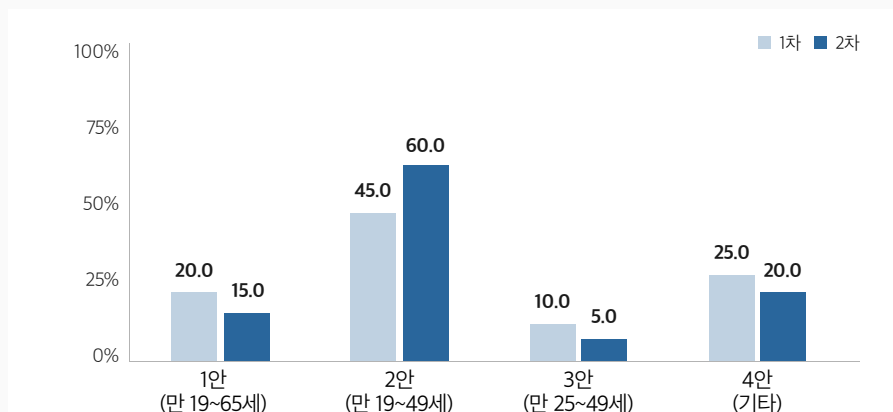
2)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https://www.ggp-i.org/>, 최종 접속일: 2023.8.2.)

- GGS는 유사한 출산율 하락과 반등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인구 조사에 젠더 이슈를 반영하여 수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규 가족패널의 목적과 부합하며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 자료 구축시 GGS 국제조사에 참여하거나 또는 일부 문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GGS는 젠더관점의 인구·가족변동 등에 관한 다국가 조사자료로, 자녀갓기, 파트너십, 부모로부터 독립 등 주요 생애사건 설문을 포함하고 있고,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와 UNFPA(유엔인구기금)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제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영향력이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적합성이 높음.
-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GGS 국제조사와 함께 한국 특성을 반영한 부가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함.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안)의 주요 설계 검토를 위해 여성가족 분야 및 양적연구, 패널연구의 전문가, 정책유관 기관 종사자 20인을 대상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조사범위는 패널조사 필요성, 패널조사 대상, 패널구조 및 조사주기, 패널조사 내용의 적정성 평가, 부가조사 주제, 국제조사 참여 방식, 국제조사 조사영역 및 문항 평가 등임.
- 조사방법은 1차 조사에서 의견 수렴한 뒤,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에서 도출한 의견을 종합하여 유사응답으로 범주화 및 재구조화하여 객관식 질문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 패널 조사대상자, GGS 국제조사 도입 방안, 한국문화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의견수렴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저출생 대응 신규 패널조사 구축시 조사대상자의 적정 연령은 만19~49세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만 19~65세(청년세대와 노년세대를 포함하는 연령대), 19~49세(독립, 결혼, 출산 등 가족변동 사건 경험이 높은 연령대), 만 25~49세(남성은 군 제대, 여성은 대졸 이후 연령대), 기타 중 만 19~49세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이는 유효표본 수를 감안할 때 가족변동 이벤트를 자주 경험하는 연령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함.

[그림 1] 패널 조사대상자의 적정 연령(1, 2차 조사 종합)



-저출생 대응 신규 패널조사 구축시 UNECE,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GGP)의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참여의 적절성 및 GGS 참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음. 분석결과“(1안) GGS 조사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2차 기준 17명(85.0%), “(2안) GGS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 조사로 실시하되, 필요시 일부 GGS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 2차 기준 3명(15%)으로 나타나 국제조사에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GGS 참여 이유로 국가비교 가능한 자료가 유용성이 높다는 점과, 저출산을 겪고 있는 타 국가의 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 모색이 가능한 점, 국제조사 참여를 통해 지식 공유, 방법론 강화, 그리고 연구기관의 위상 강화 등의 혜택이 있는 점이 제시됨.
- GGS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지표들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어 국제비교는 핵심 조사항목 위주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있었음.

<표 2> 국제조사 참여 방식(1차, 2차 조사 종합)

(단위 : %)

참여방식	선정 이유	조사결과	
		1차	2차
(1안) GGS 국제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사설계 및 문항을 대부분 그대로 도입하고, 일부 제한적으로 우리나라 고유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문항의 높은 신뢰성 -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해야 유용 -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 통계적 신뢰성 확보 -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 설문문항의 상세함 - 문항 번역 등의 신뢰성 고려 	75.0% (15명)	85.0% (17명)
(2안) GGS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조사로 실시하되, 국제비교의 유용성이 높은 GGS 문항 일부를 신규 패널조사 문항으로 도입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맥락의 특성 반영 필요 - 핵심문항 도입하더라도 고유문항이 중요 - 패널 구축의 어려움 고려 - GGS 부가조사 시행시 높은 응답자 부담 - 자체 개발해도 GGS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비교 가능 - 일부 차수에 GGS에 합류하는 것이 연속선상 문제 있음 	25.0% (5명)	15.0% (3명)

주: 응답자 수=20명 기준

- 전문가들에게 GGS의 각 조사영역과 문항을 우리나라 패널조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GGS 조사영역과 문항은 아래와 같음.

<표 3> GGS-II 핵심 문항(GGS Baseline questionnaire Version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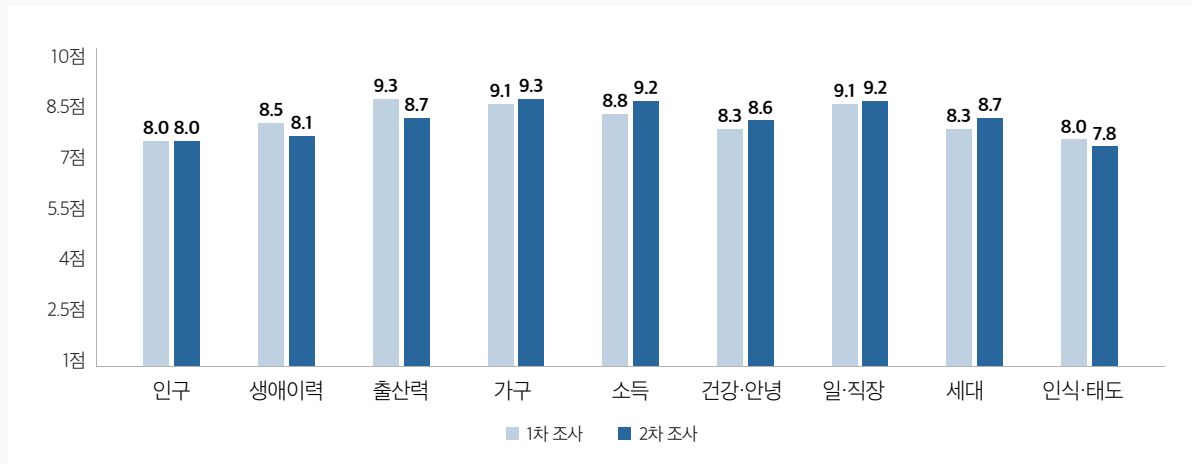
영역	내용	영역	내용
인구	출생과 이주경험(출생국가, 이주지역 등)	건강·안녕	생활만족도
	고용상태,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
	주거지(거주형태, 입주시기, 주거만족도 등)		배우자와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
	인터넷 사용 경험		건강문제
	가정 내 사용하는 언어, 이사/이주 경험, 의도		일상생활 제약
	배우자 만남 계기		신체 정보(몸무게, 신장)
	배우자 특성(성별, 연령, 경제활동, 혼인관계)		행복도, 외로움
	배우자 충돌 요인 및 해소		중요한 일 상의하는 대상
	배우자와의 자녀 경험(자녀 수, 입양 등)		우울
생애 이력	배우자 동거(배우자 수, 만남 계기, 동거 기간)	일·직장	고용상태 만족도(본인)
	배우자와의 혼인		고용 시작시기, 고용상태 및 직업
	배우자와의 자녀(자녀 여부, 입양 여부)		근로시간 및 통근시간, 특성(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종료(종료시기, 이혼)		재택근무, 야근(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동성 여부		일가정 양립 어려움(본인)
	동거 외 자녀		실직가능성(본인 및 배우자)
	자녀(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퇴직 의도(본인), 취직 의도(본인)
	자녀 사망 및 동거, 주거지		조직유형, 종사상 지위(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돌봄		탄력근무(본인 및 배우자)
	자녀 활동제약 및 건강상태		피고용인 수(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동거, 만남, 연락, 거주거리		부업(본인 및 배우자)
	자녀 관계 만족도		이전 일자리, 직업, 고용상태, 퇴사 사유
출산력	출산 의도, 자녀 계획	세대	친부모 생존 및 동거, 정보
	자녀 갖는다면, 삶에 미치는 영향		친모/친부 만남, 연락, 관계만족도
	자녀를 갖기 위한 조건의 충족 가능성		친부모 혼인 및 이별
	추가출산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견해		형제자매 수 및 출생순서
	이상적 가족 수에 대한 견해		친부모 첫 자녀
	자녀 성별 선호		성장시기 정보 및 성장기 동거
	출산 예정 여부		성장기 부모 관계, 직업 및 학력, 부모 별거
	임신 의도와 선호, 애로사항, 산후 월경		독립 의향
	출산 가능성 및 불임(임신 시도, 치료)		조부모 및 손주 정보
	피임 및 성적 결정권 행사		알상적 활동 도움
	초경과 폐경, 변성기, 첫 성관계 연령		가족 내 사적이전 소득(제공자, 수령자)
가구	가구원 정보(성별, 연령, 경제활동)	인식·태도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신뢰
	가구원 관계 만족도		미래에 대한 계획성
	가구원 활동 제약		가족 가치관(이혼 허용, 자녀 가치 등)
	배우자와 가사노동 배분 및 만족도		세대간 가치(자녀/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 등)
	배우자와 육아 배분 및 만족도		성역할(경제활동의 적합한 성별 등)
	배우자와 의사결정(지출·수입관리, 노동시간)		영아 부모의 이상적 근로시간(부, 모)
	정기적 가사·육아 도움 및 제공(방법, 대상 등)		종교(빈도, 주기, 종교성 등)
소득	부동산 자산		
	가구 경제상황		
	가족 내 고액 이전소득 수혜 경험		
	경제적 여건, 체불 경험		
	총 가구 순소득 및 가구소득 유형, 빈도, 범위		

주: 가독성을 위해 일부 내용은 축약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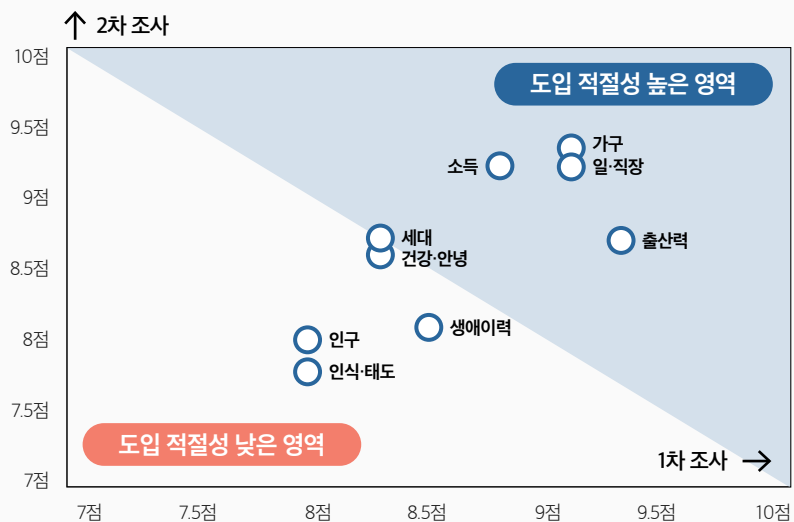
출처: Gauthier et al.(2021).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Baseline Questionnaire 3.1.1.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 GGS의 9개 조사영역을 우리나라 패널조사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도입 적절성이 높은 영역은 '가구', '일·직장', '출산력', '소득' 등이었음. 반면 '인구', '인식·태도' 및 '생애이력' 영역의 경우 적절성이 낮게 나타났음.
- 동 영역의 문항들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수정 적용하거나 혹은 한국 고유문항 개발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GGS 조사영역별 도입의 적절성(1, 2차 조사 종합)



[그림 3] GGS 조사영역별 도입의 적절성 비교(1, 2차 조사 종합)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 기초설계 방향

- 저출생 현상은 우리사회의 가족변화를 추동하는 젠더, 세대 간 관계맺음의 근본적 변화에서 비롯됨. 이러한 변화에는 보다 성평등한 관계 속에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고 친밀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지향과 실천이 담겨있음. 특히 가족변화를 이끌고 있는 청년세대는 기존세대와 상이한 당사자 감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변화된 생애전망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와 가족변화의 양상을 성평등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성찰할 것을 요청하며, 저출생 현상을 둘러싼 가족변화 요인을 성평등 여건 속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며, 글로벌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족현안을 진단하기 위한 국제비교 종단자료 구축을 제안함.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새로운 가족패널조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그 변화양상을 드러내고,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경험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출생 대응 패널조사는 우리사회의 인구위기를 성평등 목표 속에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보다 성평등한 가족 및 친밀관계의 재구조화가 인구위기의 해법임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기초설계(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조사목적) 저출생과 가족변화를 둘러싼 새로운 세대의 성평등 여건과 향후 생애전망을 추적조사하는 패널자료로, 조사영역으로 제도화된 방법의 다양성, 가족구성과 관계맺음의 다양성, 일에 대한 다양성을 조사함.
 - (조사대상) 만 19~49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내 남녀로, 약 1만 가구 및 적격가구원에 대해 가구단위 표집과 개인단위 추적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 대면(TAPI) 및 온라인(앱) 혼합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청년층 대상 온라인 조사 강화가 필요함.
 - (조사구조) 10~15년 이상 고정패널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본조사와 모듈화된 부가조사를 실시함. 이때 GGS 국제조사 등 국제비교 가능한 주제모듈의 주기적 수행 등 조사모듈의 다양성이 필요함.
 - (조사문항) 국내 고유문항과 국제표준화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독립과 생애기반, 친밀성과 관계맺음, 결혼과 파트너십, 출산 및 성재생산 건강,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일·가족·삶의 다양성, 세대관계, 가치관과 태도 등을 우리나라 저출생 특성을 반영한 관련 주요 영역을 포함함.
 - (국제표준화) GGS 참여로 국제비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GGS-II 고유 조사영역(인구, 생애이력, 출산력, 가구, 세대, 웰빙, 직업력, 소득, 태도)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입, 적용이 필요함.
- 인구위기는 국내 현안으로만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가족이슈와 인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가치의 지향 속에서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한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자료의 구축은 정책대응 마련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통계청(2023.11.29.). 2023년 9월 인구동향(보도자료).
- Gauthier, A. H., Liefbroer, A., Ajzen, I., Aassve, A., Beets, G., Billari, F., ... Vikat, A. (2021).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Baseline Questionnaire 3.1.1. The Hague [https://www.ggp-i.org/wp-content/uploads/2022/07/BaselineQuestionnaire_3.1.1.pdf, 12.07.2022].
-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https://www.ggp-i.org/>)(최종 접속일: 2023.8.2.).